

비교과 1주

놀이 이해하기

개정누리과정, 교수학습>유아-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김성숙

누리이?

■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에서는 누리과정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¹⁾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경험을 미리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 정의하고 있다.²⁾ 또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³⁾ 이와 함께 교육과정을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방식'임을 고려하면서,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임에 중점을 두고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개정 누리과정
- 교육과정='유아가 경험하는 총체'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경험

교사주도적이 아닌 유아주도적

세계, 사물을 이해하는 유아의 고유한 의식
주체성, 주도성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

- 유아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한다.
-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아가 찾아낸 새로운 놀이자료나 창의적인 놀이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자료의 사용방법이나 놀이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

유아-환경 간의 상호작용

-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는 성인의 간섭과 통제 없이 신화되고 유아가 다양한 놀이환경과 만나다.
- 유아는 기...
- 유아와 혼... 주변에 친근한 공간, 자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모든 것의 교감을 포함한다.

‘만남’, ‘교감’, ‘경험’

- 살아나는 놀이에서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살아나는 놀이에서 어떠한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 동식물, 사물, 공간, 시간....



매체의 행위주체성(Agency) 이해하기

이분법에서 탈주하자!!



역동적이고 의도성을
가진 인간



수동적인 물질

누가 주체인가?



출처 : <https://shootdoli.com/55>

이분법에서의 탈주

- 인간과 물질(비인간)은 복잡하게 상호연결되어 있다.
- 이 세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세계와 타자를 중재하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다.
- 오히려 모든 물질도 모든 행위주체자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인간과 물질은 지속적인 내부작용을 통해 서로 변화시키고 바꿔간다

긴밀한, 복잡한 얽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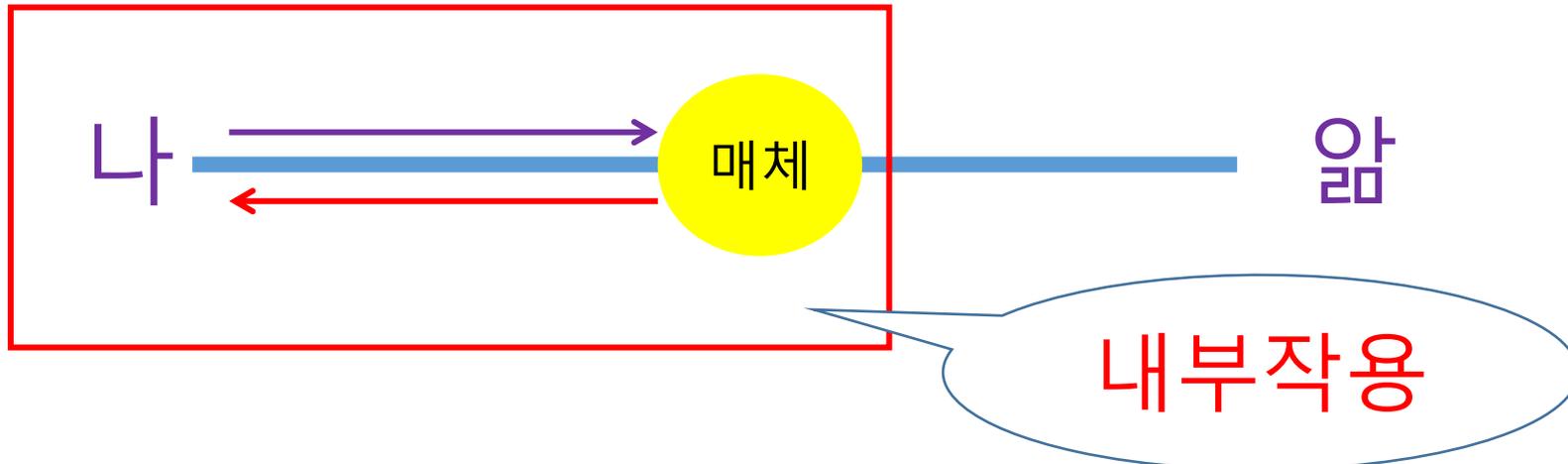




사물, 동식물, 공간, 사람, 시간....

- 특정 매체는 내 몸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Barad, 2007).



내적으로 활성화되어 운동하는 것

계단, 복도

■ 계단의 신체와 유아의 신체가 만난다.



아이들은 특별한 목적지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단을 걸어서, 뛰어 오르내리며 계단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며 스스로 '할 수 있음'의 능력을 기른다. 전신의 기쁨을 느낀다.



아이들은 안간힘을 쓰며 오른다. 힘겹게 올라감의 수고를 미련없이 버리고 신나게 내려온다.
그리고 다시 오르고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즐겁게 웃는다.

힘들지 않느냐?는 선생님의 말에 “재미있잖아요!”하며 신나게 뛰어 올라간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오르막의 꼬트머리에 손가락과 팔, 발가락과 다리, 온 몸을 ‘오름의 신체에 자신을 조절한다. 이렇게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음’의 능력을 기른다. 전신의 기쁨을 느낀다.

복도와 계단은 아이들의 이야기로 소란스럽다. 이 소란스러움은 단순한 시끄러움이 아니다. 복도와 유아들이 만나 생명이 일어나는 소리이다. 복도와 계단이 깨어나고 적막했던 화장실도 아이들의 잠기놀이와 숨바꼭질에 맞춰 아이들의 몸을 숨겨주는 좋은 장소가 되어준다. 화장실 벽면과 바닥에서 메아리치는 아이들의 소리는 화장실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듯하다.

